

美國의 國防獲得 문제점 및 개선방안

● 金泰雲 / 韓國國防研究院

19 88년 6월 30일자 朝鮮日報의 「記者手帖」 칼럼란에 『지금의 펜타곤(美國防省) 체제하에서는 나폴레옹조차 마비되었을 것이다.』라고 한 워싱턴의 군사평론가 에드워드 루드빅의 말을 引用하고 있는데, 이는 美國의 국방획득과 관련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이며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는 證言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거대화됨에 따라서 비활성화되고 환경에 대한 順應性이 감소해가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들이 일류기업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하고, 활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變身을 거듭하고 있다.¹⁾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들은 거대화되어감에 비례하여 官僚化가 심화되고, 경직화되어감에 따라 私企業과 같이 변신을 통한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구매액의 4분의 3 이상이 국방성의 것이며, 미국의 국방관련 獲得費는 2천억불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천5백만개 이상의 계약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국방획득에 직접 관계하는 인원만도 15만명 이상이며, 획득관련 규정은 3만 페이지 이상이고 79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 관련 常任委員會는 29개에 달하고, 分科委員會는 55개나 되며, 會議內에 2만명 이상의 참모 및 지원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획득 업무가 거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국방획득 과정상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국방획득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일반 국민들의 국방획득업무에 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으며, 관리기능의 중복, 계획의 변경, 비용의 증가, 감독 관리층의 중첩, 규정 법률의 과도화 등이 초래되어 이제 국방 획득은 비능률과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危機」라는 말이 적절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미국의 국방획득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報告書²⁾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국방획득 현황, 관련부서별 관점, 중요문제 분야 및 개선방안의 순서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美國의 國防획득 현황

國防獲得과정이란 정부가 필요한 군사장비와 각종 지원요소를 결정하고 정당화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배정하고 관련업체들로부터 무기, 상품 및 용역을 구입하며, 미국의 일반 국민을 대신하여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現存하는 적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무기, 상품, 용역이 적시에 적절한 가격으로 획득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방

획득과정은 아주 거대하고 복잡하며 動態적으로, 국방획득 관련업무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인원만도 3백만명에 달할 정도이다.

미국의 국방획득은 原子誘導武器에서 권총 탄환 혹은 군인가족 어린아이의 탁아소 용품에 이르기까지 수십억개 이상의 개별용품을 구입하는, 세계의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수 없는 超大規模의 기업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거대한 미국의 국방획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정부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정책 혹은 공공의 의사결정에 도달하는데 본질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미국의 시스템은 각종 마스크와 대중의 계속적인 감시하에 政府와 議會간의 경쟁을 보장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戰時를 제외하고 미국 국민은 防産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가 미국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利潤이 너무 엄청나다고 개탄한다.

셋째, 防産이 민간부문만큼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없는 제약조건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훌륭한 新式武器를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좋은 냉장고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고 도전적이다. 무기개발을 위해서는 항시 최첨단의 기술이 요구된다.

民需品이 백여개의 부속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1년에 1백만개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신무기는 1백만개의 부속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1년에 1백개만 생산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방산은 국가안전을 보장해 가면서 다음과 같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防産은 平時에 적당한 비용과 효율적인

1970년대초 美 육군은 단거리 발칸포를 대신할 長距離 사단 防空체계를 所要 제기하였는데, 美 의회의 비용절감과 早期 戰場배치라는 2大요구에 따라 기존의 M-48 차체와 F-16 레이다, 40mm포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敵 항공기의 성능향상과 함께 연구개발과 동시에 생산이 진행된 시험평가 결과 요구성능 만족이 不可하게 되어 85년 여름 중도 취소되고 말았다

방법을 동원하여 有用하고 믿을만한 군수물자를 생산해 내야 하며

- 戰時가 되면 급증하는 방산수요에 신속하게 즉시 대처할수 있어야 하고
- 매년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수요에 대처하면서 少量의 물자를 適期에 생산해야 하는데

民需部門은 이러한 要求에 부응할수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방산은 때로는 복수업체를 통한 공급 혹은 경쟁이 불가하거나 비현실적인 경우도 많으며, 규모의 경제 측면 혹은 생산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경우도 많다.*1

네째, 정부와 방산업체와의 관계는 민간부문의 구매자-판매자와의 관계와는 훨씬 다르며, 엄격한 규제, 감독, 관리, 등을 실시 한다.

다섯째, 국방획득에는 본질적으로 議會와 政府가 부담해야할 기술적 정치적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월등한 기술은 敵 무기에 대한 양적 우세를 압도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1 1986년 회계년도에 美 海軍은 17개 종류의 각기 다른 항공기를 각 기종별로 매년 18대씩 3천만불의 單價로 구매하였다

〈표1〉 1970년 이후 국방성에 대한
議會의 微視的 統制의 例

분야	년도			
	1970	1976	1985	'70~'85 年間 증가율
• 연구 및 보고서 요청숫자	36	114	458	1172%
• 국방성에 대한 기타 강제조치	18	208	202	1022%
• 법률에서의 일반 단서 조항	64	96	213	233%
• 조정된 계획의 수	180	222	1315	631%

자료) 국방분야에 대한 상원위원회 자료, 1985. 10.

첨단기술일수록 시험과 운용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으며, 계획보다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기술이 무기의 양산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재임기간중에 결과를 원하는 그러한 短期間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다.

2. 國防獲得 관련부서별 관점

가. 行政府-議會 관계

이들간의 상호관계는 당초에는 대통령의 영향력에 따라서 서로 밀고 당기는 마치 참모들간의 경쟁관계였으나, 議會의 對政府기능이 점차 강화되어 현재는 의회가 국방성에 1천8백개 이상의 독립예산항목에 대한 정밀조사와 4백개 이상의 특별연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의회는 미세한 관리분야까지 관여하게 되었으며, 국방성이 무엇을 사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행정부서의 고유한 영역인 어떻게 살 것인가 까지 관여하게 되었으며, 〈표1〉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나. 예산증가의 문제

1980년 이후 국방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987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80년 국방예산이 2천억불 규모에서 1987년에는 요구 예산 규모가 3천3백억불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무기획득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秘話(4백36불의 햄머, 6백불의 화장실용 변기, 7천6백불의 커피포트)로 인하여, 일반 국민은 대폭 증가되는 국방예산이 군사력 증강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不信을 가지게 되었다.

국방예산 증가는 무기체계 가격의 急騰에서 주로 연유하는데, 무기가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서 장비의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함을 〈그림1〉이 잘 보여주고 있다.

다. 國防省의 관점

국방성은 의회가 국방획득의 미세한 분야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다고 본다.*2 국방성의 구매담당자는 그들이 구매하는 상품의 성능도 보증하면서 동시에 향후 대체할 구성품들을 복수경쟁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상호 모순되고 있다.

따라서 구매담당자들의 士氣는 가장 저하되어 있으며, 停年이전에 유능한 사람들이 離移하고 있다. 또한 불일치되고 모순되는 현 법령들이 국방계약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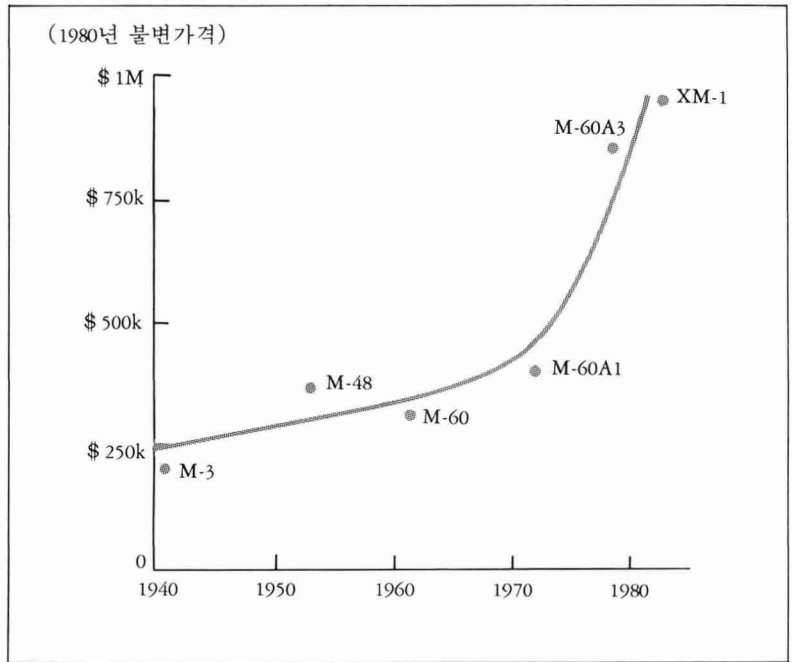
라. 議會의 관점

의회는 이제 여러가지 이유에서 국방성의 중요한 비판자가 되었다.

- 많은 議員들은 참모들, 監査기관, 유권자들의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 국방성이 국방을 책임질 능력이 부족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2 1984년 國防省은 1천3백명의 답변자를 議會에 보내어 29개의 상임위원회와 55개 분과위원회의 4백50개 聽聞會에서 1천5백시간을 답변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국방성은 매년 의회로부터 12만회이상의 서면 요구와 60만회이상의 전화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그림 1〉 新모델출현에 따른
전차 가격의
증가 추세



자료) Franklin C. Spinny,
〈Defense Facts of Life〉,
1985, P21.

• 국방계획이 경직되어 있으며, 국방성 소요예산 증대로 예산지출의 우선권을 국방성이 수시로 변경하는데 실망하고 있다.

• Packard 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大衆은 국방비 지출의 절반이상이 낭비되고 있다고 믿으며, 특히 1980~1985년 기간에는 예산이 급증함으로써 의회가 국방비 지출에 더욱더 관여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어떤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방산업체에 대해서 타락하였고, 비윤리적으로 처신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렇게 의회의 국방성, 방산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며, 이는 결국 과도한 법령 규정의 제정 및 관리, 통제 강화로 나타난다.

마. 방산업체 관점

방산업체는 더 좋은 상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수년간 계약을 늘리고 계획을 안정화하며, 軍의 요구성능과 규격을 단순화하고 인위적인 경쟁을 줄이며, 국방성의 세부감독을 줄이고 복잡한 규칙 및 규정, 법률들을 대폭 단순화하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중요한 문제점들

가. 所要提起 및 계획과정

所要 및 계획과정은 무슨 장비가, 왜, 얼마만큼, 언제까지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획득할지를 규정하는 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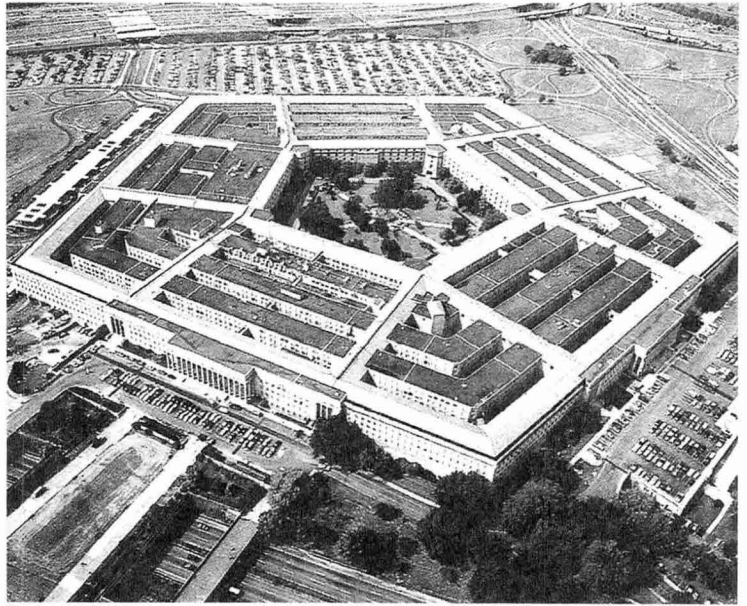
이는 무기체계의 총 壽命週期 과정에서 최초의 단계에 해당하며, 이 단계에서의 예측의 착오나 불확실한 요소는 향후 비용의 증가, 성능의 미달, 사업지연 및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좋은 교훈으로 육군의 40미리 砲인 썬트-요크 DIVAD 체계(Sergeant York Division Air Defense System)의 개발사례를 들수 있다. 1970년대초 美 陸軍은 단거리 발칸포를 대신할 보다 長距離 師團 防空體系를 소요제기하였으며, 처음에는 여러가지 代案을 제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美 議會는 비용절감과 새 무기의



미국의 국방획득 업무가 거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획득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관리중복, 계획의 변경, 비용의 증가, 3만페이지에 달하는 규정법률의 과도화등이 초래되어 이제 국방획득은 비능률과 비효율의 대명사가 되었다



조기 전장배치라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육군의 예산 요구를 무시하였고, 육군도 할수 없이 기존의 기술과 구성품을 이용한 방공시스템을 구상하게 되었다.

결국 DIVAD 시스템은 기존의 M48 전차의 차체와 F-16 항공기의 레이다를 이용하였고, 砲는 기존의 40mm 구경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의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생산과 시험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대상위협인 적 항공기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따라서 연구개발과 동시에 생산이 진행된 DIVAD의 시험평가 결과 요구성능 만족이 不可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무기획득과정인 선행개발후 선행 기술 및 운용 시험평가와 실용개발후에 실용 기술 및 운용시험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할수 있었다면 DIVAD도 시험평가의 결과를 다음 단계에서 개선하여 요구성능 달성이 가능할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당시 국방획득에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이는 DIVAD의 개량을 위한 예산 증액과 사업 연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1985년 여름 DIVAD는 중도 취소되고 말았다.*

나. 획득관련 법령, 규칙 및 규정

국방획득에 관련된 관리, 監査, 규정들은 합법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공정한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되는 법령은 폐기되는 것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법령과 조항들이 생산되고 추가되어 漸増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법령 및 규정의 증가는 국방획득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反證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附帶費用의 증가규모는 매년 50~1백억불에 달하며* 이 규모는 매년 증가한다.

다. 개별 및 공공부문간의 관계

개별부문과 공공부문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이다. 국방획

득과정에서도 이러한 비용문제때문에 국방계약에 경쟁과 確定價계약(fixed price contract)을 요구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그들의 유일한 고객인 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할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계약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에서 일단 사업의 확보를 위해서 費用, 納期, 性能面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게 되는데, 이는 추후 문제 발생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개별 및 공공부문간에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관리의 기술과 전문성이다. 관료체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국 최악의 실행결과로 나타날수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방획득과정의 적당한 단계마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보다 더 자격을 갖춘 민간인과 현역을 선발하여 배치해야 한다고 Packard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라. 계획의 변화

계획의 변화는 국방예산의 불안정의 결과이며, 따라서 국방획득은 당초 계획된 경로를 따르는게 거의 없다. 무기소요량, 생산율, 특성과 設計値등과 같은 계획의 변화는 시간과 돈에 있어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계획변화의 원인은 軍 所要提起, 연구개발과정, 행정부 입법부 상호관계 및 年度 국방예산 배정 등에서 연유한다.

마. 획득관리 人力 문제

정부의 획득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통

조직을 바꾸거나 감독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개선책은 관련 인력의 질과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국방획득 업무의 대부분은 永久 정부공무원인 文官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문관시스템은 정치로부터 보호되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거의 자동적으로 규칙적인 임금인상과 年功序列을 지키며 특별한퇴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관시스템은 지극히 보수적이며 현상에 안주하게 되므로, 기술혁신이나 획기적인 면과 같은 새로운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4. 국방획득과정 개선방안

美國의 국방획득과정은 이제 정부, 의회, 방산업체 모두가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미국의 안보도 위협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첫째, 국방비 지출이 장기간 동결되게 되면, 미국의 군사력은 크게 위축되어 1990년대에는 3분의 1 혹은 그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둘째, 국방에 대한 국민의 지원과 획득과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다. 납세자들은 국방에 소비되는 달러가 군사력을 증진시키는데 십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에 납세자들이 잘못된 획득과정에 그 많은 달러가 소비되고

*、美 陸軍은 취소된 DIVAD 시스템 대신 더 좋은 防空武器를 긴급히 소요하였으며, 1986년 11월 사업계획 검토후 1987년 6월~10월까지 기존의 地對空 유도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결과 1987년 11월 ADATS 체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비용 규모는 다음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기업체의 관리, 감독으로 인한 附帶費用이 몇년 사이에 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의 5%에 상당한다. 예를 들면 어느 방산회사는 정부관리에 의한 現地訪問, 감독, 監査, 조사등이 1982년에는 年間 4만회에서 1985년에는 8만회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附帶費用도 2배로 증가되었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세째, 감독을 위한 직접·간접비용이 증증하고 있으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감독의 결과가 방산업체의 기술혁신과 창의성을 억누를 것이라는 점이다.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을 위해서 더 엄격한 규칙, 규정, 특수계약 조항을 추가하다 보면 결국 방산업체는 活性을 잃게 되어 능력이 저하하게 된다.

네째, 예산이 동결되거나 감소하고 미국 산업체의 基底가 줄어들게 되면 기술개발능력을 잃게 되며, 수많은 규정의 압박과 재정의 제한은 방산업체가 低危險, 無危險의 시스템만을 만들게 될 것이며,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경제력이 현격히 감소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행정부, 의회, 방산업체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국방성

- 의회와 長期 국방소요에 관한 폭넓고 전문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
- 所要提起의 초기단계에서 국방성, 의회, 업체의 견해가 서로 인식되도록 할 것
- 획득과정상의 중복, 혼돈, 불확실성을 감

소시킬수 있는 관련 법령, 규칙, 규정을 간소화, 표준화, 명확화할 것

- 방산업체의 감독, 규정상에 刑事的, 民事的인 適用의 한계를 명확히 할 것
- 유능한 구매전문가를 채용토록 단계적으로 조치*⁵

나. 의회

- 의회는 국방성과 장기적 전략적인 국방 문제에 대하여 폭넓고 전문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
- 현재의 유사한 4개의 예산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줄일 것
(Budgeting, Authorization, Appropriation, Sequestering)
- 행정부와 연합하여 현재의 획득관련 법령을 대폭 간소화할 것
- 예산과 납기에 있어서 당초계획과 어쩔수 없이 변화가 생길수 있는 국방획득관리의 근본적인 특수성을 인정할 것
- 특정 무기체계에 접착하는 微視的인 眼目보다는 巨視的이고 보다 폭넓은 전략적 정책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
- 위원회 구성원의 크기와 수를 줄이고 관찰 범위를 축소할 것

*₅ 국방분야에 유능한 해당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誘引政策이 필요하며 다음의 두가지 事例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첫째, 1950년대말 미국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人工衛星의 발사에 크게 충격받아 미사일 분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능을 권장할 과학자와 전문가의 직위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 유사 민간분야보다 더 많은 급여와 기존의 文官중심의 年功序列 개념을 배제하고, 과감히 인재를 등용하여 성공하였다.

둘째, 베트남전쟁때 軍醫官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대생에게 대학재학중 학비를 보조하고 그것가로 군의관으로 복무토록 하였으며, 베데스다 海軍 病院자리에 보건과학을 위한 軍人大學을 건설하고 매년 상여금을 8천불까지 지급함으로써 해결하였음

*₆ 앞의 *₅의 미사일 要員 및 軍醫官 확보를 위해서 그 당시 議會는 Public Law(P.L) 313이라는 법령하에서 인력을 확보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었다

- 복잡한 국방문제를 다룰수 있는 보다 숙련된 참모들을 발굴함
-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⁶⁾ 경쟁력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획득 관련요원을 채용하여 근무할수 있게 함

다. 방산업체

-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을수 있는 산업체 전반의 윤리의 표준을 채택하고 公布
- 기술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誘引制度를 찾아내어 이행함으로써 미국 산업체의 능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行政所要(red tap)와 관리를 감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증대
- 엄격한 자체 비용절감과 효율증대 계획 수립
- 現存 불필요한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입법자 및 그들 참모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의회와 광범위한 접촉을 할것
- 국방획득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국방성과 의회를 적극 지원할 것

5. 提 言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戰力增強의 역사는 북괴나 군사강대국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日淺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2단계의 전력증강의 과정을 거치고, 80년대 이후 連動개념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전력증강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지난기간 동안의 전력증강은 국방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비록 일시적으로 가동율의 저조가 있기도 하였지만, 방산업체의 많은 투자 및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까지 本稿에서 서술한 미국의 상황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순조로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有史 이래 드물게 거대

다수 야당이라는 익숙되지 않은 정치환경에 접하게 되었으며, 80년대의 중요 국방이슈이던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안보위기의 시기도 지나가고 있으며, 비록 일부 급진학생들의 성급한 주장이긴 하지만 미군 철수라는 말도 우리의 주변에서 들을수 있을 정도로 주변환경이 개방되고 급변해져서, 우리는 지금 軍事環境의 大轉換期的 時點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국방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그간의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도, 규정, 관리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기능의 강화로 자칫하면 국방업무추진의 비능률 요소가 증가할수도 있다.

국민에게 국방에 대한 이해 및 신뢰 증진의 필요성과 또한 新技術 소요의 증대로 인한 무기개발의 위험성이 증대되어감에 따라, 우리의 국방획득환경도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유사해져 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 결과로 이제까지의 상황에서 볼수 없었던 비능률과 비효율이 나타날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90년대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력증강 수준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은 앞으로 우리의 국방획득관리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많은 문제점들을 미리 豫見 가능케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된 개선방향을 우리가 미리 살피고 적절한 대책을 시행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시행착오를 事前에 豫防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註 1) Peters and Watermann, 「In Serch of Excellence」 (超優良기업의 조건).
 2) CSIS 「US Defense Acquisition : A Process In Trouble」, 1987. 3.